

투데이 칼럼

정읍문화관 건립, 인문도시 정읍의 백년대계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이 격언은 오늘날 정읍이 처한 인문학적 현실을 정확히 꿰뚫는다.

정읍은 1300년의 시간을 관통해온 찬란한 문화 자산을 품고 있으면서도, 이를 하나의 서사로 엮어 보여줄 중심 공간을 갖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을 보냈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역사의 숨결이 가득한 정읍이지만, 그 역사를 지탱해온 ‘글의 힘’을 담아낼 그릇이 없었다는 점은 늘 아쉬운 대목이었다.

이제 정읍은 ‘문화관 건립’이라는 해법을 통해 흩어진 구슬을 꿰어 보배로 만들어야 할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정읍의 문화적 위상은 단순히 지역적 차원을 넘어 한국문화사의 원류(源流)에 닿아 있다.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가요인 ‘정읍사(井邑詞)’는 한국 시가문학의 호시이자, 민중의 삶과 정서를 가장 오래된 언어로 담아낸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조선으로 이어지는 문화적 맥락 또한 독보적이다.

불우현 정곡인의 ‘상춘곡(賞春曲)’은 가사 문학의 출발점으로, 자연 속에서의 사유를 노래한 조선 선비 정신의 결정체다. 또한 조선 후기 지식과 문화를 대중에게 보급했던 ‘대인방자본(泰仁坊叢本)’은 정읍이 단순히 문학을 수용하던 곳이 아니라, 문학을 생산하고 유통을 주도했던 ‘인문 중심지’였음을 증명하는 역사적 증거다.

정읍의 문화적 생명력은 과거에만 머물지 않고 현대문학사에서도 뚜렷



정 상 섭  
전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한 족적을 남겼다.

한국 리얼리즘 문학의 정점으로 평가받는 윤홍길의 ‘장마’와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는 정읍의 토양이 길러낸 걸작들이다.

여기에 서정과 노동의 언어를 결합한 박정만 시인, 아동과 자연의 언어를 일구어온 이준관 시인, 그리고 소설 ‘엄마를 부탁해’를 통해 세 계 독자들의 심금을 울린 신경숙 작가에 이르기까지, 정읍은 한국문학의 굵직한 작가들을 꾸준히 배출해 온 창작의 산실이다.

한 지역이 이처럼 1300년 전의 고대 가요부터 현대의 세계적 베스트 셀러까지 아우르는 문화적 연속성을 갖춘 사례는 국내에서 극히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읍의 문화는 아직 ‘하나의 공간’에서 시민과 방문객에게 말을 걸지 못하고 있다. 문화관 건립의 당위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문화관은 단순히 유물을 전시하는 시설이 아니다. 지역의 정체성을 시각화하고 서사화하는 공공시설이다. 지역민에게는 우리 고장의 문화적

전통에 대한 자긍심의 근거가 되고, 청소년들에게는 교과서 속 문학을 현장에서 체득하며 인문학적 상상력을 키우는 배움터가 된다.

더 나아가 문화관은 문화관광의 거점으로 기능하며 잠재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이미 남원의 혼불문화관, 고창의 미방문화관, 김제의 아리랑문화관은 지역 브랜드를 견인하는 독보적인 문화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정읍의 문화적 자력은 결코 이들에 뒤지지 않으며, 오히려 그 폭과 깊이 면에서 압도적이다.

다행스러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곧 한국가요촌 탈하로 옮길 정읍우도농악전수관을 리모델링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업 예산 30억원 중 일부가 2026년 예산으로 확보되었다는 소식이다. 이는 정읍문화관 건립을 향한 소중하고도 결정적인 ‘첫 단추’다.

필자가 2021년 제8대 정읍시의원 시절, 5분 발언을 통해 문화관 건립의 필요성을 공식 제기한 이후, 정읍의 많은 문인들은 정읍문화관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수년간 묵묵히

공문화와 설득의 노력을 이어왔다. 그 긴 인고의 시간 끝에 드디어 가시적인 출발선에 서게 된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문화관을 만들 것인가이다.

특정 작가 한 명에 국한된 기념관을 넘어, ‘정읍사에서 현대문학까지 흐르는 ‘정읍문학의 계보’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종합 문화관이어야 한다.

또한 문화관 주변을 시비(詩碑)공원, 문학 산책길, 야외 낭독 공간 등이 어우러진 ‘문학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산책하며 문화를 만나고, 작가 레지던시나 창작 교실을 통해 새로운 작가들이 탄생하는 ‘살아 있는 문화 현장’이 되어야 한다.

도심 속 접근성을 살려 시민의 삶에 깊숙이 침투하는 현대적 문화관으로 설계될 때 그 생명력은 영속될 것이다.

정읍문화관 건립은 늦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 즉 만시지탄의 과업이다. 1300년을 이어온 정읍 문학의 숨결을 하나로 꿰어낼 때, 정읍은 과거를 추억하는 도시를 넘어 미래 세대에 영감을 주는 진정한 ‘인문 도시’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문화는 인간의 삶을 위로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세우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이제 정읍은 그 문화의 힘에서 도시의 미래를 찾아야 한다. 확보된 예산이 마중불이 되어, 정읍의 문화 자산이 전 국민의 가슴에 닿는 보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사설

농협법 개정안 문제

비리와 갑질, 횡령에 불법 선거까지 농협의 각종 비위가 여전한 가운데, 최근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에는 농협 개혁을 위한 근거가 법제화될 수 있을까 여전히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작업 대행료를 한 톨도 안 내고 공짜 농사를 지은 어느 농협 조합장이 비난을 사고 있다.

직원을 때리거나 조합 돈을 쌔짓돈처럼 쓰거나, 이런 사업에 차명개입하거나 압력을 넣는가 하면, 조합원 명의로 수억 원을 대출받고 운영비를 빼돌려 도박에 쓴 직원까지 지역 농협의 비리는 끊이지 않는다.

정부의 고강도 특별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통령까지 나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농협법 개정안이 2년 7개월 만에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

다. 중앙회장의 셀프 연임 방지와 비상임 조합장의 무제한 연임 제한, 회계 감사 강화 등이 초점이다.

과감한 메스(조치)가 가해질 수 있는 수단들이 실질적으로 담보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 정기 점검을 통해 제대로 이행되어야 한다.

제왕적인 권한 구조 개선과 선거제도 전반 손질 등 추가 개혁 목소리도 높다. 제왕적 권리를 누리고 있는 조합장들의 권한을 축소하는 문제가 중요하

다. 농협이 본연의 임무가 조합원들의 실익을 증진해 주는 쪽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구조로는 그러지 못하다. 정부가 농협에 대한 특정 감사 뒤, 추가 개혁 입법에 착수할 방침인 가운데, 여야 대치정국 속에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지 관심이 크다.

노후시작연령 68.5세

국내 50세 이상이 생각하는 노후 시작연령은 68.5세로 나타났다. 2명 중 1명은 연금수급개시연령이 되면 수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작 자신이 얼마를 받는지는 알지 못하는 이가 89%에 달했다.

2005년부터 실시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는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소비 △자산 △노후준비상태 △은퇴계획 △경제활동 참여상태 △공적연금제도 수급 실태 등을 조사한다.

노후 시작 사건으로는 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50.1%), 근로 활동을 중단하는 시기(26.7%) 순으로 조사됐다. 중고령 공적연금 가입자의 수급 계획을 살펴보면 수급개시연령부터 수급 49.9%, 수급개시연령 이후 수급 18.0%, 수급개시연령 이전 수급 17.5% 순으로 조사됐다.

공적연금 예상 수급액 인지 여부는 중고령자 중 공적연금 가입자의 86.6%가 본인의 예상 수령액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령자의 1.6%만이 노후 준비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50세 이상 중고령자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주관적인 노후 필요 생활비를 조사한 결과, 개인 기준 최소생활비 139만2000원, 적정생활비 197만6000원, 부부 기준 최소생활비 216만6000원, 적정생활비 298만1000원으로 조사됐다.

최소 및 적정 노후 생활비의 지출항목별 배분 비중은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가 가장 높았으며, 사회보험료, 보건의료비, 주택·수도·전기·가스 및 기타 연료 순이었다. 노후생활의 내실 있는 자료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임시 대통령 취임 선서하는 로드리게스 권한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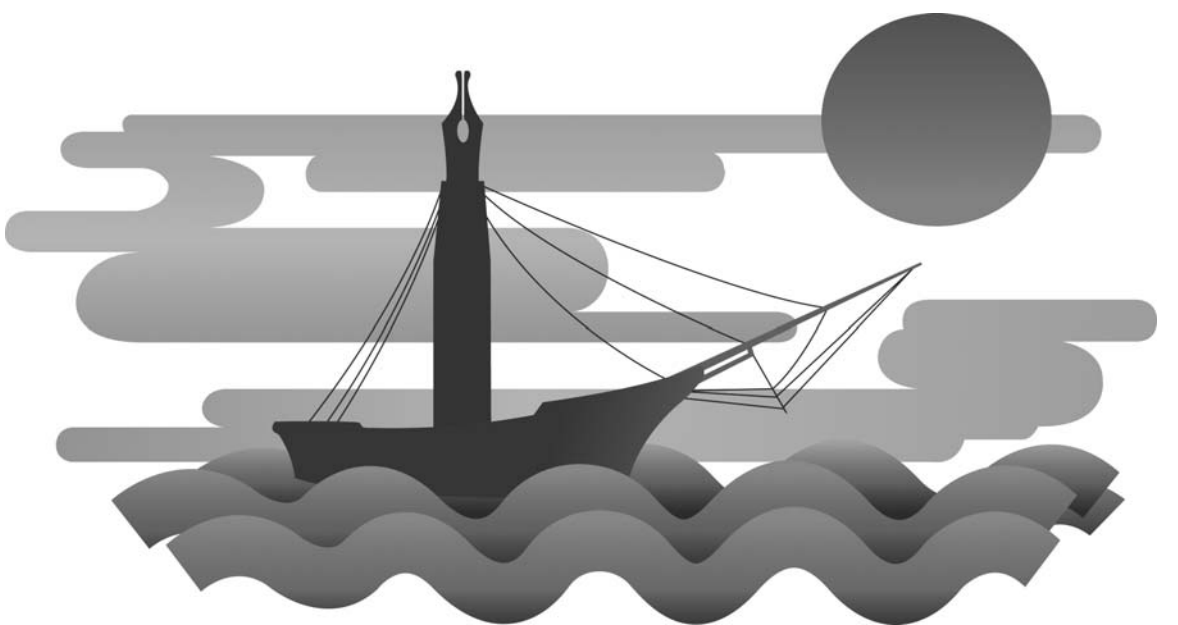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5일(현지 시간) 카리커스 국회의사당에서 임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동방박사 행렬’에 환호하는 사람들



5일(현지 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가톨릭 주현절(Epiphany)을 기념하는 전통 행사 ‘동방박사 행렬’ (카발가타 데 레예스)이 열려 사람들이 퍼레이드에 환호하고 있다.



###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 전주매일